

어렵고 좇같은 파이널 모의평가 2회 해설

〈필적확인란 출처〉
도메이고속도로 시미즈정선을 시속
200 km 넘게 달려나가는거야
- BURNOUT SYNDROMES -

어렵고 좇같은 파이널 모의평가 2회 빠른답지									
1	④	2	③	3	④	4	②	5	③
6	⑤	7	④	8	①	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①	14	③	15	④
16	③	17	③	18	③	19	⑤	20	③
21	③	22	⑤	23	③	24	④	25	②
26	②	27	①	28	③	29	⑤	30	⑤
31	②	32	⑤	33	④	34	⑤		

[비문학]

[1~3] 스키마 이론(독서론)

연계 비연계

같이 보기

2024 LEET <광역학 치료>

2025 LEET <포르피린증과 흡혈귀>

2026 LEET <DMN 모델링>

1. 정답 ④ #필요조건

정답 해설

④ 독자의 긍정적 독서 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필요조건은 아니다. 독자의 긍정적 독서 태도가 없으면 스키마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1문단에 제시된 내용이다.
- ② 3문단에 제시된 내용이다. 개인이 가진 이 구조화된 체계(스키마)가 독해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 ③ 2문단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선지이다.
- ⑤ 3문단 하단의 추론에 대한 내용이다.

2. 정답 ③ #미스매치

정답 해설

③ 1문단에 따르면 '텍스트 독해 - 정답 찾기'의 쌍에 집중하는 교육은 과거의 방식이다. 이는 스키마 이론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의 추론에 대한 내용이다.
- ② 스키마에 대한 학술적으로 잘 알려진 설명을 변형했다. 일반적으로 스키마는 일종의 슬롯으로 작동한다고 설명된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스키마가 있어야 독해가 성공할 수 있다. 배경지식은 스키마가 아니다.
- ⑤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이다.

3. 정답 ④ #자료해석 #세테리스파리부스

정답 해설

- ④ [그룹 1]과 [그룹 2]는 모두 독해에 실패한 그룹이다. 이 때문에 이 둘을 근거로 독해가 성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을 추론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실험에 활용된 텍스트는 맥락이나 주제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텍스트이다. 이는 <실험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그룹 3]과 [그룹 1]을 통해 ㉠을 거쳐야 스키마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 ② [그룹 3]을 통해 ㉠을 거치면 스키마를 형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그룹 1]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결과이다. 스키마가 없으면 독해는 실패한다.
- ⑤ [그룹 2]는 독해 이후에 ㉠을 거쳤고, [그룹 3]은 독해 이전에 ㉠을 거쳤다. 차이만이 차이를 설명하므로, 스키마 형성 시점이 독해의 성패를 결정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보기>의 실험은 Bransford와 Johnson의 1972년 연구 Contextual Prerequisites for Understanding에 제시된 인지과학 분야의 가장 고전적인 실험이다. 5번 선지의 내용이 이 실험의 결론에 해당한다.

Comment

LEET에서 3년 연속으로 큰 크기의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실험 자료의 해석은 data literacy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해 봤습니다.

[4~9] (가) 회의주의와 토대주의 (나) 비트겐슈타인 (철학)

연계

EBS 수능특강 56p <로티의 자유주의 해석학>

EBS 수능특강 81p <지식에 대한 토대론의 입장>

같이 보기

2009 LEET예비 <원히하우젠 트릴레마>
2014 수능AB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
2025 6평B <정합설>

Comment

철학 지문은 항상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이론들을 미리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답 ② #A의B

정답 해설

- ②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무어가 기초 믿음으로 삼은 것은 당연한 일상적 명제 자체이지 당연한 일상적 명제의 정당화 근거(감각 경험)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회의주의는 어떤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인 지식이 불가능(근거 없는 독단으로 전략)하다고 주장한다.
-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무어가 일상적 명제를 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것들에는 앎의 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즉 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안다고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무어는 일상적 명제들이 확실성이라는 속성을 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앎과 확실성은 애초에 분류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의심할 수 있는 것만이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의 4문단에서 의심 또한 언어적 활동이라며 “의심의 게임”이라고 말한 것에서 의심 역시 언어 게임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 게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의심도 불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것도 지식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같은 문단에서 모든 지적 시도가 언어적 활동이라고도 하였다. #후건부정

5. 정답 ③ #논증

정답 해설

- ③ 회의주의가 제시한 공격은 정당화된 믿음이 존재

하려면 세 경우 중 하나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트릴레마). 또한 그것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나 모두를 거부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나뉘다고 하였다. 여기서 회의주의가 정당화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고려하면, 회의주의가 “모두를 거부하는” 입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회의주의는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것도 수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세 경우 중 순환을 받아들이는 건 정합주의, 무한 후퇴를 받아들이는 건 무한주의이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므로, 지식을 주장하려면 정당화된 믿음이 존재해야 하고, 그러므로 세 경우 중 하나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 ② 토대주의는 사슬을 끝내는 경우를 선택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믿음으로 정당화되지 않아도 되는 기초 믿음 개념을 제시하였다.
- ④ 회의주의는 믿음의 사슬을 끝내는 것(기초 믿음), 끝내지 않는 것(순환과 무한 후퇴) 모두 거부한다.
- ⑤ 기초 믿음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정당화되는 특수한 내재적 성질을 가지므로 사슬을 끝내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게 토대주의의 견해이다.

6. 정답 ⑤ #공동전제 #요건

정답 해설

-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무어와 무어가 비판한 관점(회의주의)이 동일한 것을 전제했다고 지적하며, 그들은 의심도 그것의 틀 안에서만 성립함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즉 무어와 회의주의 모두 의심이 제한 없이 가능함을 전제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해당 전제가 어떤 지식도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태도(회의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어의 태도(토대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관점 모두 공유하는 전제가 있다면, 그 전제만 제시해서는 두 관점 중 어느 하나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24학년도 6평 14번(확장 인지 이론 지문)에서도 쓰인 원리이다. 참고로 해당 전제는 (가)의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언제나 의심은 가능하므로~대체로 받

아들여진다). 트릴레마는 해당 전제를 받아들이므로 발생하는 것인데, 토대주의와 회의주의 모두 트릴레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므로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동일하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무어는 확실성에서 앎을 끌어냈고 그 둘을 사실상 동일시하였다.
- ②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정당화 역시 언어 게임으로 본다. 그러므로 언어 게임을 벗어난 독자적인 정당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 ③ (나)의 2, 3, 4문단에 따르면 무어의 명제는 ‘안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으며, 언어 게임이 성립하기 위해 먼저 있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또한 의심도 언어 게임의 일종이며 의심이 가능할 때만 지식(앎)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다’의 선결 조건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나)의 2문단에 제시된 내용이다.

7. 정답 ④ #속성 #인과

정답 해설

- ④ (나)의 4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의심도 자신의 틀 안에서만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이든 의심할 수 있는 건 아님을 함축한다. 그리고 그것은 의심과 정당화 등의 시도가 언어적 활동임을 주목하면 분명해진다고 한다. 또한 (나)의 3문단에서 확실성은 언어 게임의 틀이라고 했다. 확실성은 사실상 ㉠과 같은 말이므로, 종합하면 언어 게임인 의심이 언어 게임의 틀인 ㉠을 의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틀 안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니 틀 자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4문단의 마지막 인용문도 그런 의미이다. 그러므로 정당화 역시 언어 게임이니 그것의 틀인 ㉠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즉 ㉠은 의심할 수 없고 정당화되지도 않는다.

오답 해설

- ① ㉠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즉, ㉠에 대해 ‘정당화된다.’는 속성을 부여할 수 없다.
- ② ㉠과 ㉡의 순서가 바뀌었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은 내재적 속성으로 지위를 유지한다.
-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의 성립이 언어 게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어 게임 활동의 성립이 ㉡으로 이루어진다. 즉 순서가 바뀌었

다.

- ⑤ (가)의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은 정당화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해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정당화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3문단에 따르면 확실성은 앎(지식)과 다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을 '지식'의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8. 정답 ① #매핑 #배경지식

정답 해설

- ① <보기>에서 데카르트는 정당성의 바닥에서 모든 것이 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확실한 지식이자 중심적 앎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방법론으로 도달한 것이다. 즉 무어의 입장인 토대주의에 해당한다. 무어의 명제들이 언어 게임의 바탕이자 토대라는 주장을 한 것은 비트겐슈타인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토대주의(무어)와 회의주의를 모두 비판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상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에게 모든 지적 시도는 언어 게임이고, 언어 게임이 출발하는 바닥은 확실성 또는 '경첩'인데, 이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참고로 데카르트는 토대주의라는 사조의 첫 시작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즉 철학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대주의자로 꼽힌다. 이 점을 알고 있었다면 판단이 한결 쉬웠을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나는 팔을 가지고 있다'와 같은 명제들이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건 무어의 주장이고, 무어는 데카르트와 같은 토대주의자이다. 그러므로 둘은 상충하지 않는다. 또한 무어는 일상적인 명제가 기초 믿음의 자격을 가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는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당성의 바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③ 어떤 믿음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회의주의의 주장인데, 데카르트는 토대주의이므로 둘은 상충한다. 또한 데카르트는 확실한 것이 모든 학문을 뒷받침하는 중심적인 앎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앎 즉 지식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④ 앎과 확실성은 애초에 분류를 달리해야 한다는 건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고, 이는 데카르트의 토대주의와 상충한다. 또한 비트겐슈타인은 무어

의 명제들이 앎과 달리 실수나 의심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며, 확실성과 달리 앎은 실수나 의심 등의 조건이 요구되므로 그 둘은 애초에 다르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이 중심적 앎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기>에서 그것이 의심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에게 그것들은 무어의 명제와 마찬가지로 앎이 될 수 없는, 확실성이자 '경첩'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다.

- ⑤ 무어가 앎의 문법을 오용하였다는 건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이고, 이는 데카르트의 토대주의와 상충한다. 또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을 앎이라고 본 데카르트의 생각 역시 비트겐슈타인은 무어처럼 앎의 문법을 오용한 경우로 볼 것이다.

9. 정답 ⑤ #부분관계

정답 해설

- ⑤ ㉠은 어떤 부분이 복합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빗방울이 모여 큰 내가 되는 것도 동일하다. 즉 부분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②④ 모두 어떤 목적이나 결과에 도달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부분 관계와는 무관하다.
- ③ 예식이나 계약 따위를 진행되게 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부분 관계와는 무관하다.

[10~13] 약리학 이해하기 (생물)

연계

EBS 수능완성 180p <식품 첨가물>

같이 보기

2023 수능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

Comment

출제와 검토에 큰 도움을 주신 오르비 Chisato 선생님과 에피머 선생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0. 정답 ③ #결정 #양상 #허위적인과

정답 해설

- ③ 2문단의 용량-반응 곡선에 대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참고로, 상당히 약한 양상이라는 점을 주의하자. ⑤번 선지와 비교해 보자.

오답 해설

- ① ‘약물 고유의 성상과 인체의 보편적인 생화학적 반응, 약물 투여 대상 집단의 생리적 특성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된 개별 약물의 용량과 약효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약효는 용량뿐만 아니라 약물 고유의 성상, 인체 자체의 생화학적 반응, 생리적 특성이 모두 작용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약효는 투약량(만)이 결정하지 않는다. 독효 또한 같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약동학의 연구분야는 인체가 약물에 미치는 영향이다. 인과 관계가 뒤집혀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약효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TD50이 아니라 ED50을 고려해야 한다.
- ⑤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ED50은 실험 총 인원의 절반이 반응하도록 하는 양이다. 누구나 반응한다고는 할 수 없다.

11. 정답 ⑤ #A의B #훈제청어

정답 해설

- ⑤ 3문단에 따르면 파라켈수스의 ‘독’은 특정한 물질에 대한 효과이다. 즉, 특정한 물질의 효과이지 특정한 물질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물질 자체를 파라켈수스의 ‘독’으로 지칭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약효와 독효 모두 물질의 효과이며, 이는 파라켈수스의 ‘독’으로 지칭된다.
- ② 3문단 상단의 내용이다. 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약력학이고 실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독력학이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약효와 독효 모두 물질의 효과이며, 이는 파라켈수스의 ‘독’으로 지칭된다.
- ④ 전자는 독효가 나타난 인원을 생각해야 하고, 후자는 약효가 나타난 인원을 생각해야 한다.

12. 정답 ⑤ #수리적사고력 #공식 #A의B

정답 해설

- ⑤ ED50을 TD50으로 나눈 값은 4문단에 제시된 치료지수의 역수이다. 물질 A와 물질 B의 그래프를 고려해 보면, 물질 A와 물질 B의 TD50값은 동일하고, ED50값은 물질 A가 물질 B보다 작다. 즉, 치료지수는 A가 B보다 크므로 치료지

수의 역수는 A가 B보다 작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물질 A가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물질 B의 1% 독성용량과 99% 독성용량을 그 래프로 비교해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작다. 하지만 이것이 약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 ② 물질 A의 독효에 대한 용량-반응 곡선의 기울기는 물질 B의 곡선에 비해 가파르다.
- ③ 임상시험에서 약효와 독효가 발현되기 위한 용량은 ‘특정 물질의 잠재적 물질 투여 대상인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값이므로, ‘퇴행성 관절염’ 인구 집단에 대한 값을 ‘관절염’ 인구 집단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 ④ 치료지수에 따른 안전성은 A가 B보다 높으나, 한번 독효가 발현되는 경우 치사율은 A가 B보다 높으므로 이 경우 높은 수준의 의학적 감시가 필요할 수 있다. 지문에는 4문단 하단에 제시된 내용이다.

Comment

사실 ①번 선지의 이 값은 그냥 나온 건 아닙니다. 안전역(Margin of safety, 위키백과에는 certain safety factor로 나와 있음)은 1% 독성용량(LD1)/99% 유효용량(ED99)으로 나타내는데, 이 또한 약물 안전성의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1보다 작으면 안전하지 못한 약물로, 일반적으로는 항암제나 디곡신(심부전 치료제), 와파린(항응고제) 등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약효가 필요한 경우의 약들이 이러한 곡선을 나타냅니다. 지문에서는 ‘특정 물질이 약물로 활용되려면 일반적으로 약효가 나타나는 용량이 독효가 나타나는 용량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 이러한 경우에 약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99% 유효용량이 1% 독성용량보다 높더라도 약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틀린 선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3. 정답 ① #어휘

정답 해설

- ① 성질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오답 해설

- ② 지문은 동사이고 선지는 명사이다.

③④⑤ 애초에 뜻이 다르다.

[14~17] 택배 네트워크 (사회)

연계

EBS 수능완성 157p <택배 네트워크의 유형>

14. 정답 ③ #결정

정답 해설

- ③ 3문단에 제시된 플레트레이트 편향을 의미한다. 플레트레이트 선호는 소비자로서 하여금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H&S는 순수 이동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당 가능한 화물 분류 시간이 P2P보다 짧다. 즉, 총 이동 시간은 순수 이동 시간과 화물 분류 시간의 합이고, 화물 분류 시간이 짧다면 순수 이동 시간이 길더라도 총 이동 시간은 짧아질 수 있다. 따라서 총 이동 시간이 순수 이동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표현을 쓸 수 없다. 2026 LEET 아제모을루 지문 선지에 사용된 논리를 가져왔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서브 터미널과 허브 터미널의 구분은 화물 H&S에서 사용하는 분류이다. 서브 터미널과 허브 터미널은 서로 연결되어 화물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운송은 출발지 근처 영업소에서 수거되고 터미널로 이동한다. 즉, 수령인과 가장 가까운 터미널이 아니라 배송지와 가장 가까운 터미널에서 출발해야 한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지역 내의 모든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방식은 H&S가 아니라 P2P이다.

15. 정답 ④ #사례찾기는요건부터 #때문에

정답 해설

- ④ 3문단에 따르면 마음 편하게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정액 요금제를 선호하는 현상을 플레트레이트 편향이라고 한다. 이 선지의 정은 추가 결제에 대한 부담을 느껴 월정액 서비스를 구매했으므로, 플레트레이트 편향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여 선택했다.

- ②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여 선택했다.

- ④ 미래에 할 후회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했다. 이는 마음 편히 사용하려는 것과 다르다.

- ⑤ 시간 맞춰 치킨을 먹는 편리함과 매일매일 주문을 넣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Comment

P 때문에 Q라는 것은 P가 Q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P라면 ~Q라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6. 정답 ③ #강화약화

정답 해설

- ㄱ. ㉠을 분석해보면 ‘무료배송 임계값 도입 → 교차 채널 효과 발생’을 뜻한다. 이 선지의 사례는 전건에도 해당하고 후건에도 해당하므로 강화 사례이다.
- ㄴ. ㉡은 ㉠이나 ㉢과 달리 개연적인 상관관계 가설로, ‘무료배송 임계값 \propto 주문 빈도⁻¹’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무료배송 임계값을 높이자 택배 주문 빈도가 줄어들었다면 이는 강화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ㄴ. ㉢의 주장을 분석해 보면 ‘무료 배송 임계값 도입 → 택배 주문 빈도 상승’을 뜻한다. 이 선지의 사례는 전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례는 ㉢의 주장과 무관하여 강화하지도 약화하지도 않는다.

Comment

강화약화 유형은 LEET나 PSAT 수험생들도 어려워하는 주제입니다. 강화약화 유형을 만나면 우선 판단 대상이 논증인지, 상관관계 가설인지, 조건문 가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문 가설 ‘P→Q’는 니코드 규칙에 따라 P&Q인 사례는 강화, P&~Q인 사례는 약화이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중립입니다. 상관관계 가설 ‘P \propto Q’은 P&Q와 ~P&~Q 모두 강화 사례이고 P&~Q와 ~P&Q는 약화 사례가 됩니다.

17. 정답 ③ #양상

정답 해설

- ㄴ. 지문에 따르면 P2P에서 불균형한 물동량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운송 트럭에 일정 이상 화물을 채워야 여러 터미널을 들러야 하기 때문이다.

허브 터미널 시스템이 도입되면 H&S와 유사해지는데, 이는 불균형한 물동량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 ㄱ. ㉓는 한 단위 지역의 허브 터미널이 ㉒~㉔로 3개 존재하는 상황이다. 즉, 단위 지역마다 허브 터미널이 여러개이다. <보기>의 조건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의 경우 ㉔로부터 다른 지역의 허브 터미널로 이동한다. 허브 터미널이 여러개이므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경로는 유일하지 않을 것이다.
- ㄴ. <보기>에 따르면 ㉓에서 화물은 허브 터미널에서 서브 터미널로 운송되므로 지역 내 운송 시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 모두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문단에 따르면 H&S에서는 서브 터미널은 허브 터미널로 운송하는 중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문학]

[18~21] 작자 미상, 속향전 (고전소설)

연계

EBS 수능특강 121p <속향전>

같이 보기

2004 수능 <속향전>

2007 수능 <속향전>

2015 수능B <속향전>

18. 정답 ③ #서술상특징

정답 해설

- ③ 사향이나 부인의 말을 통해 주인공 속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성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④ 입체적인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병렬적인 배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19. 정답 ⑤ #사실판단

정답 해설

- ⑤ 사향은 승상과 부인의 대화를 듣고 대경하여 승

상이 속향을 내쫓지 않은 부인을 책망하였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속향을 빨리 쫓아내 버리려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장 승상은 화를 낸 적이 없다.
 ② 속향이 집에서 나올 때 장 승상과 만나지 못했으며, 하직 인사를 하지도 못했다.
 ③ 장 승상이 자신이 밤에 곧 꿈을 언급한 것은 맞으나, 이를 근거로 속향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용녀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은 맞는데, 그 주체는 속향이 아니다.

20. 정답 ③ #의도

정답 해설

- ⑤ ㉑은 속향이 누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㉒과 같이 말한 의도는 속향이 멀리 떨어져 가라는 것이다. 이는 누명이 벗겨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㉑이 속향의 처지를 '토로'한다고 볼 수 없다. '토로'의 사전적 뜻은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서 말하다.'로,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토로'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㉒역시 속향의 안전을 당부하는 말이 아니다. 사향은 속향과 대립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② ㉑이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기 위한 말인 것은 맞다. 하지만 ㉒에는 조롱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
 ④ ㉑이 설득인지는 애매하다. 한편, ㉒의 경우 재회를 기약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⑤ ㉑에서 말하는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 물건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으며, 승상 역시 물건의 행방을 궁금해하고있지 않다. ㉒은 속향과 친분을 끊으려는 의도이지 끊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중부정

21. 정답 ③ #매핑

정답 해설

- ③ 유리종을 깨뜨린 사실을 은폐한 주체는 용녀이다. 용녀는 주인공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마지막 부분의 용녀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도와주는 조력자이다.
- ④ 오색구름은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⑤ 적절한 해석이다.

[22~26] (가) 작자 미상, 용부가 / (나) 구강, 북새곡 / (다) 작자 미상, 임계탄

연계

EBS 수능특강 60p <용부가>
EBS 수능완성 35p <북새곡>
EBS 수능특강 237p <임계탄>

22. 정답 ⑤ #이론

정답 해설

- ⑤ (가)는 ‘~보소’와 같은 어미로, (나)는 ‘어찌 알리’와 같은 설의적 표현으로, (다)는 ‘어디 있으리’와 같은 표현으로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명시적 청자는 설정되지 않았다.
- ② (가)가 유사한 문장구조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나)에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은 없다.
- ④ (가)에는 안타까움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 점층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23. 정답 ③ #이항대립

정답 해설

- ③ 반분대로 일을 삼고 털 뽑기에 세월이 걸리는 모습은 소극적인 모습이다. 적극적인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친정에 연락하는 모습은 복종하는 수동적인 존재와는 거리가 멀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저 부인의 시집살이는 능동적이다. 이를 토로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시부모의 걱정예 말대답을 하는 모습은 유교적 가치관과 어긋난다. 이를 본 당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추론이다.
- ⑤ 남편에 종속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24. 정답 ④ #허위적인과

정답 해설

- ④ 화자가 있는 곳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은 마을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백성들이 유교적 가치를 잃은 적 없다. 그렇게 볼 근거가 없기도 하고, 돌아가려는 감사에게 가지 말라고 하자 감사가 주상 전하를 언급하는 지점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다.
- ② 이는 백성들이 화자를 가지 말라고 하는 모습이다. 임금에 대한 비판과는 무관하다.
- ③ 햇빛 아래 백배하고 비는 내용은 ‘이곳부터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 ⑤ ‘삼만 육천 세를 우리 님께 술잔 올리자’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지 복도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25. 정답 ② #지칭 #함수적관계

정답 해설

- ② 탐관오리를 ‘거북’으로 비유하며 비판하고 있다. 사람이 거북을 거쳐 짐승이 되어 진곡미를 다 훔쳐갔다는 표현에서 이것이 탐관오리를 비유하며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도량을 바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체는 공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공수자는 정확한 그릇을 만들었다.
- ③ 백성에게 나누어준 곡식 자체가 썩정이인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곱게 찢은 곡식이었지만 진흙 청의 모든 쥐가 이를 썩정어로 만든 것이다.
- ④ 없는 사람을 장부에 올리는 관리를 비판하고는 있지만, 그를 거북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 ⑤ 자신의 기대와 되는 상황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26. 정답 ② #사실관계

정답 해설

- ② ㉠이 저 부인과 갈등을 겪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은 저 부인의 시집살이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걱정하는 장면도 제시된 인물이다.
- ③ ㉢을 믿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시집살이는 힘

들어졌다. 시집살이의 원인이므로 힘들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④ ㉔은 저 부인과 비교되며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㉔에 인용된 표현 ‘들고 나니 초롱꾼’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27~30] (가) 유치한, 생명의 서 일장 / (나) 조지훈, 석문 / (다) 강이천, 창해옹의 산수 여행

연계

EBS 수능특강 89p <생명의 서 일장>

EBS 수능완성 202p <석문>

EBS 수능특강 272p <창해옹의 산수 여행>

27. 정답 ① #개념어

정답 해설

- ①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②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의지가 강조된다.
- ③ 현대시에서 비유와 상징이 없을 수가 없다.
- ④ 경어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 ⑤ 동일한 시어 ‘석문’이 반복되며, 이를 통해 화자의 상황이 드러난다.

28. 정답 ③ #이항대립

정답 해설

- ③ 창해옹은 백두산과 한라산에 대립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2024 9평 월훈 지문의 보기 문제의 논리를 참고했다.

오답 해설

- ① ‘아라비아의 사막’은 실재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일종의 관념적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② ‘검푸른 이끼’는 오래된 이미지를 환기한다. 또, 돌문은 현재 닫혀 있는 상황이므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시간이다.
- ④ 화자는 현재 부정적인 현실에 있으므로 ‘웃자락을 나부끼며 호울로 서’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이다. 한편, 창해옹이 말한 ‘족적’은 아직 찍지 않은 것으로, 미래에 창해옹은 이를

찍을 것이다.

- ⑤ ‘당신’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나)의 화자에 있어서 ‘당신이 오’신 시간은 미래일 것이다. 한편, (다)의 ‘서른’은 과거이다.

29. 정답 ⑤ #의도

정답 해설

- ⑤ 기존의 ‘나’는 창해옹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㉔을 말할 시점의 ‘나’는 창해옹의 말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백하다는 것은 창해옹의 표현이나 말이 명백하다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창해옹은 ‘이 인간 세상에 사는 자들’을 ‘진흙 구덩이의 지렁이나 새우젓 속의 등에’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 ② 창해옹은 ‘추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허황된 세계를 추측하고 말을 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③ 해동의 나라가 좁기는 하지만, 볼 수 있는 힘을 다하면 정신을 트이게 할 수 있어 산수 여행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④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

30. 정답 ⑤ #이항대립 #양상 #단정 #허위적인과

정답 해설

- ⑤ 보기에 따르면 부정적인 현실과 본질적 자아 탐구는 이항대립적이다. 이 선지의 구절은 ‘차라리’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본질적 자아 탐색에 실패한다면 죽음까지 각오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항대립적으로 이는 회의와 번민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생명이 부대껴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해서 생명이 부대낀 것이다. 인과 관계의 선후가 뒤바뀌어 있다.
- ② ‘백일이 불사신같이 작열’하는 모습은 본질적 자아 탐구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는 부정적 현실과는 이항대립적이다.
- ③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주체는 알라의 신이다. 화자는 알라의 신이 아니다.
- ④ 화자가 본질적 자아 탐색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

것을 성공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는 것은 화자가 바라는 것이지, 반드시 그럴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안 된다.

[31~34]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현대소설)

연계

EBS 수능특강 283p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31. 정답 ② #문학이론

정답 해설

- ② 이 선지의 표현은 시간 역전을 지칭하는 것이다. [B]는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나'는 난장이의 큰 아들이 끌려나가던 과거를 회상한다. 회상은 시간 역전이다. 참고로, 이 선지는 2005학년도 평가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표현을 조금 변형한 것이다. 당시에는 '서술하는 시간과 서술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는 엄밀히는 시간 역전만을 지칭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소설은 많은 경우 과거 시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A]는 1인칭 시점이다.
 ③ [B]는 현재 시제가 사용되지 않는다.
 ④ [A]에는 독백적 어조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짧은 문장의 연속은 [B]에만 나타난다. [A]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012 MEET 언어추론 기출 선지를 변형했다.

Comment

소설에서 과거를 제시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중 작품 내 인물의 들려주기와 작품 밖 서술자의 요약적 서술은 순차 구성이고 작품 내 인물의 회상이나 작품 밖 서술자의 과거장면제시는 교차 구성으로 봅니다. 동질적인 시간의 구조에서 이질적인 시간의 구조가 두 가지 나타났을 때 교차 구성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 구조에 교란이 있다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32. 정답 ⑤ #지칭

정답 해설

㉠~㉣는 모두 공원들이고, ㉤는 지섭이다. 참고로,

작중 지섭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33. 정답 ④ #발화 #추론

정답 해설

- ④ 변호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신문을 이어나간다. 이는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아마 변호사는 우발적인 살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으려고 한 것 같다. 하지만 난장이의 큰아들은 우발적인 살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오답 해설

- ① 맥락상 공원들은 주인공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난장이'의 반대되는 '아주 큰 거인'이라고 굳이 대답한 점에서 단순히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님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난장이의 아들의 변호인이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③ 난장이의 아들은 살인의 이유를 숨기고 있지 않다.
 ⑤ 난장이의 아들이 공장 밖 사람들에게 한 말은 거짓이 아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34. 정답 ⑤ #포스트모더니즘 #해결 #추론

정답 해설

- ⑤ 경훈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적 분열을 겪고 있다. 사랑으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표현도 그것을 통해 내적 분열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노력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이를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욕설을 내뱉는 경훈의 모습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비인간적으로 여겨질만한 표현이다. 이를 <보기>의 표현에서는 인간 소외와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지칭한다.
 ③ 개연적인 추론이다. '조금 큰 악당'이 있다면, '가장 큰 악당'도 있을 것이다. 이를 <보기>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스스로에 대한 회의를 하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이 표현은 <보기>를 가져온 논문에서 제시된 표현이다.

- ④ 앙상한 가시고기의 모습은 제시문 초반에 가난하다고 제시된 공원들을 연상시킨다. 참고로, 이 표현은 <보기>를 가져온 논문에서 제시된 표현이다.

Comment

이 문항의 <보기>와 선지는 현대문학연구 제9집에 실린 류양선 교수의 연구 “액자소설형식과 ‘뫼비우스의 띠’”에서 가져왔습니다.